

2006~2015년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뭘 담았나

5대암 무료검진 年 900만건으로 확대

정부가 25일 확정된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은 암 발생·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암 위험 요인 중점 관리 = 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해 담뭏값에 경고 그림문구 등을 추가하고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면세담배제도 폐지 등 금연 정책 강화와 함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향상, 비만인구 및 음주율 감소를 통해 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체스·과일을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36.4%에서 60%로 늘리고 운동관련 전문인력 육성, 생애주기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운동 생활화,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1%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2012년까지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을 개발한다.

직업 관련 발암물질 노출 현황과 노출 근로자

소아암 6만명 지원·골수기증 희망자 DB구축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흡연을 15%로 낮춰

를 파악하고 직업성 암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암 조기검진 확대 = 연간 검진 건수를 현재 2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 건으로 확대하고, 국가암 조기 검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종별 검진 기관 확대 및 이동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일반검진기관 외에 암종별로 검진기관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 별로 이동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양질의 암검진 보장을 위해 암종별 표준 검진 매뉴얼 개발·보급, 암 검진기관의 질 평가제 도입, 검진수가 현실화 등도 실시한다.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간에 실시간으로 검진자료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암 조기검진사업

인력을 지원한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 의료수급자를 포함한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까지 80%까지로 확대한다.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를 2만8천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폐암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해 적합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골수기증 희망자를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골수희망자 DB를 구축한다.

◇암환자 재활·완화치료 지원 강화 = 말기암 환자를 위해 2천500개의 호스피스·완화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및 저소득층 소독약품 등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지방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목표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15년
흡연율감소 · 성인남성 · 성인여성	52.3 2.8	30.0 2.5	15.0 2.0
건강식생활실천 · 지방 적정섭취 인구비율 · 과일 채소 적정섭취 인구비율	44.0 36.4	50.0 50.0	55.0 60.0
B형간염 ·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비율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관리	2.7~4.7 10.5	10.5 10.5	10.5 10.5
운동실천율 향상 · 성인의 규칙적 고강도 운동 실천율 · 성인의 규칙적 중등도 운동 실천율 ·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14.4 18.7 39.8	20.0 30.0 45.0	25.0 35.0 50.0
비만율 감소 · 적정체중 인구비율 · 과체중 및 비만 아동 인구비율	63.3 10.4	70.0 5.0	75.0 2.5

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한다. 호스피스·완화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일당지역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를 개발한다.

◇국가암 관리 인프라 구축 = 지역간 암환자의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34곳의 지방의료원을 전문형 지역암센터로 지정,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병동 기능을 보장한다. 국립암센터의 암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 기술개발 = 진단시약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서 탈피, 2015년에는 진단시약 15종, 전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한다. 장기 정도만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수준을 세포·분자단위까지 찍을 수 있도록 첨단 영상 진단기술을 개발한다. 국제수준의 임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항암제 임상시험의 동북아허브가 되도록 한다.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등과 연계해 중앙조직·혈액 등의 시료은행을 만든다.

◇정밀수거자 bungy@kwangju.co.kr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공적'으로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공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의 경우 전망을 상향조정하면 1~2년내 실제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르면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지난 2002년 3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전망만 수정했다.

무디스는 전망 상향의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안보위협 완화, 양호한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여건 호조 등을 들었다.

특히 한미 FTA가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한미 동맹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출 채산성 6분기 연속 하락

무렵, 200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원·달러 환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채산성이 6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발표한 '최근의 환율하락과 무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채산성은 2004년 4·4분기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악화됐다.

무렵이 산출한 수출채산성 지수는 2004년 3·4분기 3.8, 4·4분기 -0.9, 2005년 1·4분기 -6.5, 2·4분기 -9.0, 3·4분기 -8.4, 4·4분기 -7.2, 2006년 1·4분기 -7.2로 2004년 4·4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채산성 지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채산성이 전전동기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채산성 악화는 무엇보다 환율급락으로 인해 원화표시 수출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중소기업 모두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수출이 환율에 덜 민감한 편이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환율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무렵은 지난 2월 856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수출채산성이 한계상황에 도달했거나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조사 대상의 88%였으며 특히 대형 중소기업기업은 44%가 적자수출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일부터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27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우정사업본부가 구축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별 잔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휴면에金を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액 휴면예금을 자동으로 공공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G전자, 호주서 2005년 최고기업상

LG전자는 호주 시장조사기관인 GfK와 유통전문잡지 '어플라이언스(Appliance Retailer Magazine)'가 공동 선정하는 '2005년 최고기업상(Best Supplie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호주의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업에 수여되며, 판매실적이나 제품개발, 판매·마케팅 지원, 고객서비스 등이 기준이 된다.

LG전자는 또 HD급 일체형 디지털TV를 통해 호주내 디지털TV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기업상'도 동시에 수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두바이유 배럴당 67달러

이달들어 8차례 사상 최고가

두바이유가 처음으로 배럴당 67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브렌트유 선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4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7.48달러로 전거래일보다 1.69달러 올라 지난 20일의 최고가(66.87달러)를 4일만에 바꿨다.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서만 8차례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현물가도 배럴당 74.30달러로 전거래일보다 0.12달러 올랐다. 그러나 WTI 현물가는 배럴당 69.16달러로 4.69달러나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WTI 선물가도 배럴당 73.33달러로 전거래일보다 1.84달러 하락했으며 런던 원유시장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1.58달러 떨어진 72.99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WTI 가격이 지난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으나 두바이유는 미국의 휘발유 공급차질 가능성 등 요인이 뒤늦게 반영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VVIP 마케팅' 개시

25일 서울 아시아나 항공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 항공과 벤츠 코리아의 업무 제휴 조인식에서 강주안 아시아나 항공 사장(왼쪽 두번째)과 이보 마을 벤츠코리아 사장(왼쪽 세번째)이 양사의 업무 협약을 약속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5월부터 해외여행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1만명의 벤츠 고객들을 무료로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해 주며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벤츠 S-클래스를 이용해 공항까지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반 승객 항공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연합뉴스

1분기 GDP 고작 1.3% 성장

(실질 국내총생산)

건설·설비 투자 부진...1년만에 최저치

지난 1·4분기 민간소비가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대비 증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울러 연초 환율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 무역수입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

어나지 못한다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1.2% 증가했으나 설비투자는 0.7% 감소해 지난 2004년 4·4분기(-0.9%)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건설투자도 0.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재화수출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했으며 재화수입도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비밀목'인 수출의 GDP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4분기 1.1%포인트에서 올 1·4분기는 -0.1%포인트로 떨어졌으며,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크게 높아졌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조시메이트	[신세계백화점]가전 A/S기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6	062-360-1058
한국종합개발(주)	건축기사/실내인테리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7	062-368-8900
에스아이투어(주)	콜센터 고객상담 정규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7	062-224-5401
기아자동차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신입/경력 영업직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4/27	02-518-1654
동서산업(주)	[광주]재경부문 고졸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8	02-318-6806
㈜교수닷컴	신입사원(회원유치)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2-2189-6133
㈜청천이프유	정규직 전산관리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230-2421
바이오맥스(주)	영업관리 및 기획 남직원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30	062-973-8811
㈜그린텔	KTF 동광주 멤버십프라자 정규직 상담원(주5일근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02	042-223-4900
이케이엔피(주)	LG기어 DM 센터 고객상담원(주5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2	062-228-5437
메인텍(주)	[광주]영업관리/국내영업/일반영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5	031-381-7077
부건종합건설(주)	공동주택현장 소장 및 공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5	062-382-7960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

한은 신임 부총재보

김병화·윤한근씨 임명

한국은행은 25일 김병화(55) 경제통계국장과 윤한근(54) 뉴욕사무소장을 신임 부총재보로 임명했다.

신임 김 부총재보는 한은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대부분을 조사연구 부서에서 일한 조사연구 전문가로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윤 부총재보는 금융시장국장과 정책기획국장 등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작년 3월부터 뉴욕사무소장으로 재직해왔다.

한은의 부총재보 5명 가운데 정규직 부총재보는 이날짜로 임기가 만료되며 정광우 부총재보는 26일자 로 금융수시위원회에 선임돼 한은을 떠난다. /연합뉴스